— Press kit —

November 2026



Carrousel Incliné

Ref. 66222S



블랑팡, 까루셀 앵클리네를 통해 브랜드의 상징적인 컴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장을 열며 정밀 시간 측정 기술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다

까루셀은 2008년부터 블랑팡을 상징하는 워치메이킹 기술로 자리매김해 왔다. 실제로 블랑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까루셀 구조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까루셀 무브먼트의 전체 라인업을 개발한 유일한 워치메이킹 메종이다. 이를 통해 블랑팡은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메커니즘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탄생한 까루셀은 정밀 시간 측정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천문대 크로노미터 정밀도 경연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밀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블랑팡은 이러한 전설적인 역사에 충실하면서도 단순한 개선을 넘어, 까루셀의 정밀 시간 측정 기술이 진화하는 혁신적인 새로운 장을 연다.

정밀 시간 측정 기술에 대한 오랜 헌신을 바탕으로, 블랑팡의 사장 겸 CEO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는 단순히 까루셀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그치고자 하지 않았다. 그랑 더블 소네리(Grande Double Sonnerie)가 차임 워치의 세계에 멜로디라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했듯, 그의 목표는 까루셀이 탄생한 본래의 목적, 즉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착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까루셀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실제로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블랑팡의 무브먼트 설계팀은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착용하기에 적합한 얇은 두께를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사각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한 크로노미터 테스트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에는 총 4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했다.

블랑팡의 연구는 실질적인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기술적 성과를 이뤄냈다. 까루셀의 핵심 부품을 지지하는 브리지를 오픈워크 메인플레이트의 평면에 대해 30도 기울여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까루셀 앵클리네는 진폭, 일오차, 자세에 따른 최대 오차 편차 등 주요 정밀 시간 측정 지표에서 놀라운 성능을 구현했다. 이러한 성능은 여섯 가지 표준 자세 모두에서뿐 아니라 100시간의 전체 파워 리저브 구간에 걸쳐 유지된다. 각 타임피스는 소유자에게 인도될 때, 전체 파워 리저브 동안 여섯 가지 자세에서 측정한 성능을 기록한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며, 일일 오차 허용 범위는 0초에서 +2초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착용성을 희생하지 않았다. 두께 11.30mm, 직경 40mm에 불과한 까루셀 앵클리네는 하나의 타임피스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추었다. 획기적인 정밀 시간 측정 성능과 슬림한 드레스 워치 특유의 세련된 우아함이 그것이다.

까루셀 앵클리네는 극도로 정교한 스켈레톤 구조로도 차별화된다. 고도로 오픈워크 처리된 아키텍처는 일반적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기계적 기능을 드러낸다. 블랑팡 역사상 최초로 선보이는 전체 사파이어 케이스 안에 탑재된 칼리버 222ISQ는 210시간에 달하는 세심한 수작업 피니싱의 결과물이다. 까루셀 브리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만 블랑팡 피니싱 장인들이 1주 반의 시간을 투입한다. 실제로 피니싱 부서는 무브먼트 각 부품에 최상의 마감을 구현하기 위해 60개 이상의 전용 공구를 별도로 제작해야 했다.

— 주요 특징 —

- **까루셀, 다시 중심 무대로:** 완전히 새로운 설계에서 출발해 개발한 칼리버 222ISQ는 차세대 까루셀의 시작을 알리는 무브먼트다. 향후 블랑팡 까루셀의 기반이 될 이 칼리버는 블랑팡이 해당 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메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 **세계 최초의 기술:** 30도 기울어진 1분 회전 플라잉 까루셀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블랑팡은 네 가지 수직 자세와 두 가지 수평 자세를 포함한 여섯 가지 표준 자세에서 일오차 편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무브먼트에 놀라운 시각적 깊이감까지 더해졌다.

- **4년에 걸친 개발:** 초기 연구 단계에서 블랑팡은 경사각을 0도부터 35도까지 5도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각 각도에서 여섯 가지 자세에 따른 진폭, 일오차 및 최대 오차 편차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30도가 정밀성, 무브먼트의 슬림한 구조, 시각적 조화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제공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특허 출원 구조:** 이중 볼 베어링 시스템을 적용해 까루셀 케이지의 높이를 낮추는 동시에 두 개의 동력 전달 기어 트레인이 모두 보이도록 설계했다.

- **탁월한 정밀 시간 측정 성능:** 모든 까루셀 앵클리네에는 평균 일오차 허용 범위가 0초에서 +2초임을 명시한 블랑팡의 개별 크로노미터 인증서가 제공된다.

- **파워 리저브:**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메인스프링 배럴은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메인스프링이 풀리는 전체 과정에서 토크 변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파워 리저브 전 구간에서 안정적인 시간 측정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스켈레톤 처리된 배럴을 통해 메인스프링이 감긴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파워 리저브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울트라 스켈레톤 구조:** 로듐 도금 골드 또는 레드 골드로 선보이는 칼리버 222ISQ는 극도로 정교한 오픈워크 구조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피니싱은 물론,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메인스프링의 감김 상태, 와인딩 클릭, 까루셀 동력 전달 기어 트레인 등 다양한 기계적 기능을 완전히 드러낸다.

- **블랑팡 최초의 전체 사파이어 케이스:** 케이스 미들 및 케이스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부품과 베젤 및 크리스탈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부품으로 제작된다. 각 부품에는 약 100시간의 가공 및 폴리싱 작업이 필요하다. 극도의 투명성을 구현한 사파이어 케이스는 거의 모든 각도에서 무브먼트와 기계적 기능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통적인 수작업 피니싱:** 르 브라쉬(Le Brassus)에 위치한 블랑팡 데코레이션 워크숍에서 총 210시간에 걸쳐 수작업 피니싱을 진행한다. 253개의 날카로운 내부 각을 포함한 칼리버 222ISQ의 부품들은 윗면과 아랫면 모두 정교하게 마감된다.

- **컴팩트한 크기와 신뢰성:** 조속 장치가 기울어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까루셀 앵클리네는 직경 40.30mm, 두께 11.30mm의 놀랍도록 컴팩트한 크기를 유지한다. 실제 착용을 고려해 개발 및 테스트된 이 타임피스는 오뜨 오를로제리의 기술력과 일상적인 착용에 적합한 편안함 및 견고함을 결합했다.

- **프레젠테이션 박스:** 까루셀 앵클리네는 마케트리(상감 세공) 장식이 적용된 우드 박스에 담겨 제공된다.

"까루셀은 시계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조속 장치를 기울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손목에 착용했을 때나 내려놓았을 때나 흠잡을 데 없는 정밀성을 유지하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성을 가능하게 한 모든 연구와 장인 정신을 소유자가 사파이어를 통해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크 A. 하이에크(Marc A. Hayek)
블랑팡 회장 겸 CEO



블랑팡의 헤리티지
블랑팡은 위대한 워치메이킹 전통에 충실하며, 오뜨 오를로제리의 요람인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 위치한 자체 워크숍에서 무브먼트의 100%를 인하우스로 제작한다. 설계와 생산부터 피니싱,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 블랑팡의 컬렉션에는 문페이즈를 갖춘 컴플리트 캘린더, 애뉴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 듀얼 타임존, 투르비용, 크로노그래프, 미닛 리피터, 그랑 소네리 등 워치메이킹을 대표하는 모든 주요 컴플리케이션과 구조가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까루셀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1892년 반 보니크센(Bahne Bonniksen)이 발명한 이 메커니즘은 20세기에 들어 거의 잊혔으나, 블랑팡의 재해석을 통해 포켓 워치에서 손목시계의 시대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브랜드를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랑 컴플리케이션은 워치메이킹 기술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블랑팡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두 번째 멜로디를 추가한 칼리버 15GSQ의 그랑 더블 소네리를 통해 보여주었듯, 블랑팡은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에 끊임없이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자 노력한다. 까루셀 앵클리네 역시 같은 철학을 따른다. 혁신적인 무브먼트 구조와 까다로운 장인 수작업 피니싱을 결합한 완전히 독창적인 까루셀 해석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이후 블랑팡은 까루셀과 오뜨 오를로제리 컴플리케이션을 결합한 전례 없는 작품들을 통해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2010년에는 캐시드럴 공을 갖춘 미닛 리피터를, 2013년에는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미닛 리피터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였다. 같은 해에는 하나의 무브먼트에 투르비용과 까루셀을 결합하고 디퍼렌셜을 통해 두 메커니즘의 일오차를 평균화하는 타임피스를 공개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블랑팡은 거의 잊혔던 워치메이킹 역사의 한 장을 현대적인 혁신의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까지 블랑팡은 1분 회전 플라잉 까루셀 구조를 손목시계용 칼리버의 전체 라인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메종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축적된 전문 기술은 까루셀 앵클리네의 기반이 되었다. 블랑팡은 칼리버 222ISQ를 새로운 초석으로 삼아 브랜드를 상징하는 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칼리버가 제시하는 기술적 발전은 향후 블랑팡 까루셀의 방향을 이끌게 될 것이다. 한때 워치메이킹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던 메커니즘이 이제 정밀 시간 측정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된 것이다.



마크 A. 하이에크에게 새로운 까루셀은 단순히 이전 모델보다 더 화려한 모습이어서는 안 됐다. 회전하는 까루셀을 시각적 효과만을 위해 기울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경사 구조는 반드시 시계의 일오차 성능을 향상시켜야 했으며, 그 효과는 측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제 역시 정밀 시간 측정 연구와 그 이면에 담긴 장인 기술을 관찰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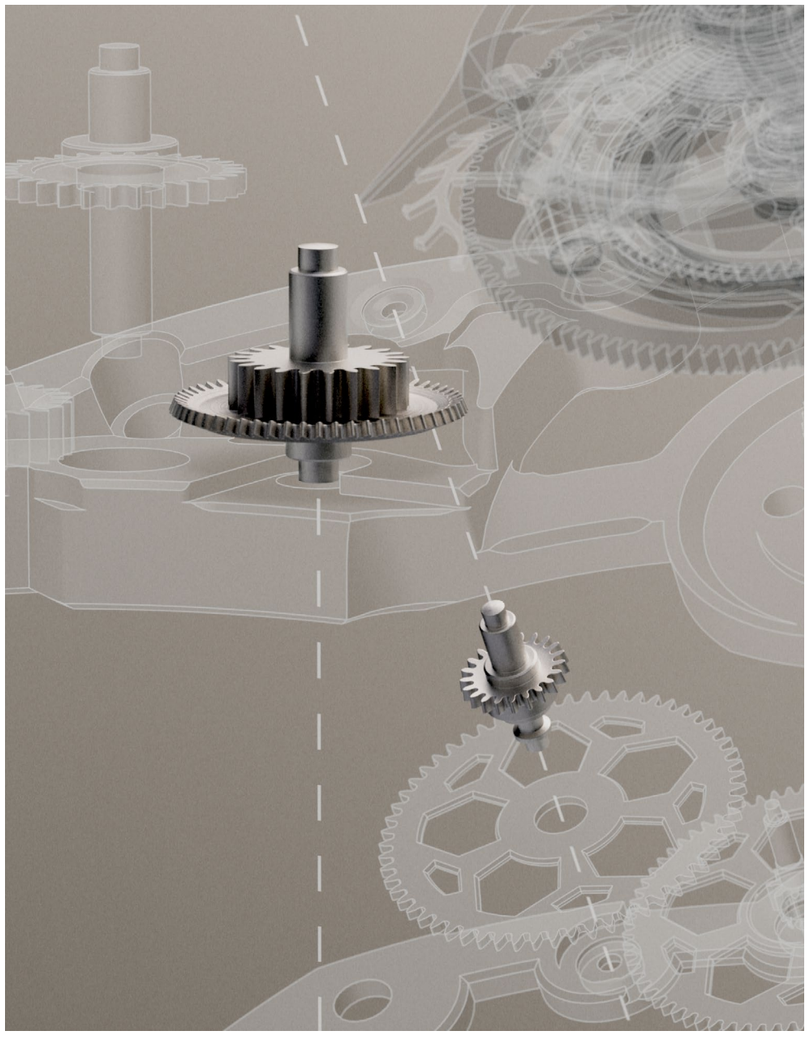
까루셀의 부활
발명된 지 한 세기가 넘은 후, 블랑팡은 까루셀을 현대 워치메이킹의 중심 무대로 다시 불러왔다. 2008년 블랑팡은 최초의 까루셀 손목시계를 공개하며 플라잉 구조, 1분 회전, 케이지 중앙에 배치된 밸런스 휠, 오토매틱 와인딩 등 여러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했다.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는 이러한 유형의 메커니즘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정밀 시간 측정의 시그니처
정밀 시간 측정은 까루셀 앵클리네의 구조가 가져온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 개발의 출발점이었다. 그 출발점에는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인 중력과 마찰이 시계의 정밀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까루셀은 조속 장치를 메인플레이트와 평행한 평면에서 회전시킨다. 이러한 회전은 여러 수직 자세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평균화하지만, 시계가 수평으로 놓여 있을 때는 회전하는 동안 조속 장치 역시 계속 수평면에 머문다. 까루셀 앵클리네에서 블랑팡은 이러한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시계가 다이얼을 위로 향하게 하거

마크 A. 하이에크는 진정한 정밀 시간 측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상적인 자세에서의 정밀성은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밀 시간 측정이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유자와 함께 생활하고, 움직이며, 밤에는 곁에 놓이는 시계가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밀 시간 측정입니다.”



나 아래로 향하게 놓여 있을 때에도 조속 장치는 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스듬한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이를 통해 자세에 따른 오차를 평균화할 수 있는 방향의 범위가 확장된다. 다시 말해 시계가 평평하게 놓여 있는 동안에도 조속 장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각도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칼리버 222ISQ의 구조를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경사 구조가 정밀 시간 측정 성능에 미치는 이점을 먼저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입증해야 했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 블랑팡은 고정식 조속 시스템과 투르비용을 탑재한 기존 칼리버를 기반으로 개발한 시험용 무브먼트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다. 경사각은 0도, 5도, 10도, 15도, 20도, 25도, 30도, 35도로 단계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각 단계에서 여섯 가지 표준 측정 자세에 따른 일오차, 진폭 및 최대 오차 편차를 측정했다. 이를 통해 경사각이 여섯 가지 자세에서의 정밀 시간 측정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의 전환점은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나타났다.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자세에 따른 오차 편차가 이미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30도에서는 일오차 허용 범위가 0초에서 +2초에 이르는 탁월한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을 달성했다. 이것이 경사 구조가 제공하는 첫 번째 이점이다. 시계의 작동 자세에 따른 영향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또한 블랑팡은 시계의 자세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상적인 착용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시험 대상의 자세를 빈번하게 변경하며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손목에 착용하거나, 평평하게 놓거나, 측면으로 세워두는 경우에도 진폭과 일오차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이 소유자가 시계를 착용하는 방식에 더 이상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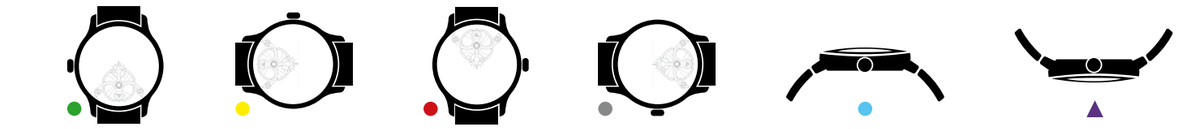
블랑팡은 우아하면서도 조화로운 시계를 만들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30도는 안정적인 진폭, 균형 잡힌 비율, 세련된 전체 두께를 결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각도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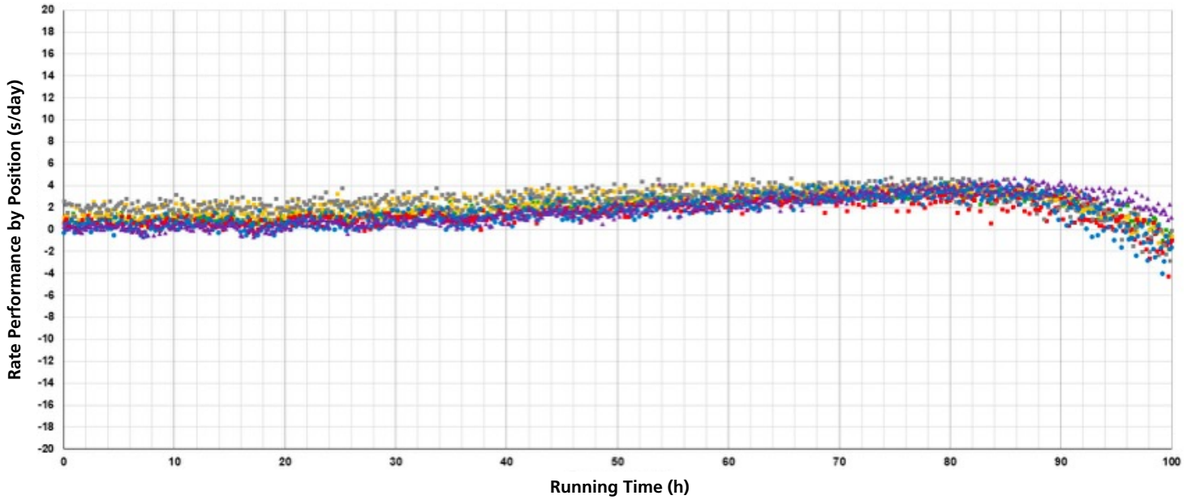
그러나 이는 첫 단계에 불과했다. 기울어진 축에서 작동하는 조속 장치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기계적 과제를 수반한다. 칼리버 222ISQ는 전체 각도 변화를 한 지점에서 처리하는 대신, 까루셀의 두 동력 전달 기어 트레인으로 분리되기 이전 단계에서 22도와 8도의 두 차례 연속적인 기어 맞물림을 통해 30도의 각도 변화를 분산시킨다. 이러한 구조는 각 기어 맞물림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도 변화를 제한하고, 두 기어 트레인이 동일한 경사면에서 작동하도록 한다.

까루셀 앵클리네의 크로노미터 성능

Chronometric performance measured over the entire power reserve

Standard watchmaking 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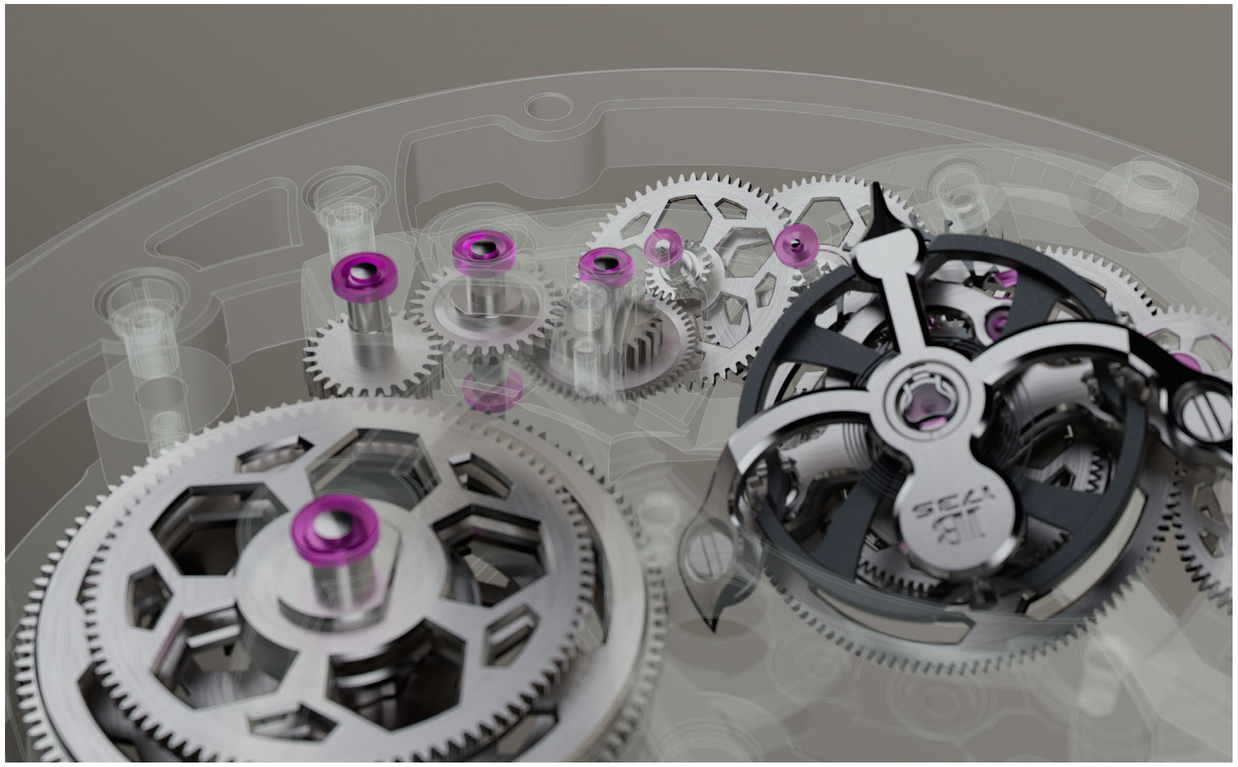


각 점은 픽토그램으로 표시된 여섯 가지 표준 워치메이킹 자세(두 가지 수평 자세와 네 가지 수직 자세)에서 1분 동안 측정한 일오차를 나타낸다.

여섯 가지 자세에 대한 측정 주기는 시계가 작동하는 전체 시간인 100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를 통해 자세, 메인스프링의 감김 상태, 등시성 등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타임피스의 전체적인 정밀 시간 측정 시그니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조속 장치에 전달되는 동력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메인스프링 배럴은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한다. 스켈레톤 처리된 구조를 통해 메인스프링의 감김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파워 리저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어 트레인에 동력을 공급하는 배럴에는 ‘E(Empty, 비어 있음)’와 ‘F(Full, 완전히 감김)’로 표시된 그래픽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적용되어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측정과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까루셀 앵클리네에는 평균 일오차 허용 범위가 0초에서 +2초임을 입증하는 블랑팡 크로노미터 인증서가 제공된다. 각 시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발급되어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이 인증서는 100시간의 전체 파워 리저브에 걸쳐 여섯 가지 표준 자세에서 측정한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을 기록하며, 각 까루셀 앵클리네만의 고유한 정밀 시간 측정 시그니처를 형성한다.



케이지
까루셀 앵클리네의 조속 장치는 블랑팡의 4Hz 까루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정밀 시간 측정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케이지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다. 전체 질량은 8.5% 감소했으며, 회전 관성은 30% 줄어들었다. 중앙에 배치된 밸런스 휠은 기존과 동일한 관성 모멘트를 유지하면서 직경을 8mm로 확대했다. 밸런스 휠에는 매립형 조정 스크루와 실리콘 헤어스프링이 적용되었으며, 케이지는 60초마다 한 바퀴 회전한다.

더 커진 밸런스 휠과 더욱 컴팩트해진 케이지의 결합은 까루셀의 시각적인 비율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밸런스 휠의 존재감은 더욱 강조되는 반면, 기울어진 구조물의 전체 크기는 정교하게 제어된다. 이에 따라 케이지 휠의 직경은 이전 세대의 기어비를 유지하면서 9mm로 축소되었다. 더 작아진 크기는 경사진 구조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고, 시각적인 비율을 밸런스 휠 자체에 더욱 가깝게 만든다.

케이지에는 블랑팡 투르비용 특유의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었다. 부리 형태의 초 인디케이터는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지만 필수적인 디테일이다.

이중 볼 베어링 지지 구조는 케이지의 높이를 줄이는 동시에 기존에 동력 전달 시스템을 가리고 있던 브리지를 제거한다. 특허 출원 대상인 이 구조를 통해 두 개의 동력 입력부, 즉 4번 휠 피니언과의 맞물림 및 케이지 회전 기어 트레인을 모두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암으로 구성된 캐넌 피니언 마찰 시스템은 핸즈의 시간 조정 기능을 유지하면서 반경 방향의 크기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을 통해 30도의 경사 구조와 놀랍도록 절제된 전체 두께를 동시에 구현했다. 무브먼트의 직경은 35.2mm, 두께는 5.3mm이며, 케이지가 무브먼트 평면 위로 돌출되는 지점에서는 6.98mm에 이른다. 완성된 시계의 전체 두께는 11.30mm에 불과하다.

울트라 스켈레톤 구조와 사파이어 케이스
존재의 이유가 무브먼트의 핵심에 있는 시계라면, 그 모든 요소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블랑팡은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시계 케이스 전체를 사파이어로 제작했다. 사파이어 다이얼과 결합된 이 구조는 전면과 후면, 측면에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무브먼트의 울트라 스켈레톤 구조는 일반적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시계의 기계적 기능을 모두 드러낸다는 기능적 원칙을 따른다. 단순히 시계 내부가 비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이 아키텍처는 기계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추가하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각적 존재감을 유지해야 했다. 이로써 사파이어 케이스는 무브먼트를 위한 하나의 무대가 된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모든 기능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배럴 드럼의 오픈워크 부분을 통해 메인스프링이 드러나며, 감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조정 메커니즘은 세팅 레버를 노출하고, 추가적인 개구부를 통해 크라운을 돌릴 때마다 움직이는 와인딩 클릭과 그 스프링을 볼 수 있다. 캐넌 피니언 마찰 시스템과 까루셀의 동력 전달 기어 트레인 역시 관찰할 수 있으며, 경사진 기어 맞물림 구조는 특정 각도에서 모습을 드러내 세심하게 관찰하는 이에게 특별한 발견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케이스는 스위스 라쇼드퐁(La Chaux-de-Fonds)에서 키로풀로스(Kyropoulos) 공법으로 성장시킨 사파이어를 사용해 제작된다. 케이스는 두 개의 주요 사파이어 부품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케이스 미들과 케이스백이 통합된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베젤과 크리스탈이 통합된 구조다. 각 부품을 완성하는 데에는 약 100시간의 가공과 폴리싱 작업이 필요하다. 사파이어 다이얼에는 베벨 처리되고 기울어진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와 야광 핸즈를 적용해, 투명한 구조 안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무브먼트 설계와 디자인 사이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기술적 요구사항과 미학적인 기하학 구조는 함께 발전했다. 오픈워크 부분과 브리지의 형태, 비율은 완성된 메커니즘에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자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처음부터 설계되었다.

극도로 스켈레톤 처리된 골드 아키텍처와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 완전히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는 블랑팡의 정밀 시간 측정 연구 성과를 눈앞에 펼쳐 보인다. 동시에 그 이면에 담긴 장인 기술 역시 드러낸다. 모든 개구부는 하나의 기계적 기능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작업 피니싱 표면을 함께 보여준다.





워치 피니싱의 예술
수작업 피니싱은 하나의 예술이며, 블랑팡은 르 브라쉬에 전용 데코레이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뛰어난 기술을 갖춘 장인들이 전통적인 장식 기법의 모든 영역을 구현한다. 칼리버 222ISQ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만 210시간의 피니싱 작업이 필요하다.

블랑팡은 이러한 수준의 타임피스에 걸맞게 눈에 보이는 표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전통적인 피니싱을 적용한다. 그러나 까루셀 앵클리네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사실상 사라진다. 무브먼트를 거의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숨겨진 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식을 담당하는 장인들의 표현에 따르면, 칼리버 222ISQ는 '윗면'과 '아랫면'이 아니라 '두 개의 윗면'을 가진 무브먼트로 구상되었다. 이에 따라 오픈워크 메인플레이트와 브리지의 윗면과 아랫면 모두에 앙글라주(모서리 베벨링)가 적용된다. 윗면의 베벨은 30도, 아랫면의 베벨은 45도로 가공된다. 더욱 넓게 처리된 윗면 베벨은 그랑 더블 소네리를 위해 처음 개발된 접근 방식을 계승한다.

워크숍의 전문 기술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는 무브먼트 부품 전반에 걸쳐 구현된 253개의 날카로운 내부 각이다. 단, 하부 케이지 휠의 프레스 가공으로 형성된 각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각의 접합부는 모두 개별적으로 형태를 다듬고 수작업으로 폴리싱해야 한다. 장인들은 조각칼인 뷔랭(burin)을 사용해 베벨의 형태를 만들고, 나무 공구에 부착한 연마지를 점차 더 고운 입자로 바꾸어가며 다듬는다. 마지막으로 발레 드 주에서 자라는 야생 용담 식물의 줄기를 사용해 최종 폴리싱을 완성한다.

시계 애호가들은 회전식 공구로는 완벽하게 날카로운 내부 각을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무브먼트의 피니싱을 살펴볼 때 이 특징에 특별히 주목한다. 이는 최고 수준의 전통적인 수작업 피니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페를라주와 직선형 새틴 피니싱이 장식을 완성한다. 베벨 처리된 표면에 페를라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후 각을 다시 한번 폴리싱해야 하므로, 극도의 인내심이 요구된다. 메인플레이트 또는 배럴 브리지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만 55~60시간이 소요된다.

기계적 기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까루셀 앵클리네는 블랑팡 오뜨 오를로제리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차원, 즉 정밀 시간 측정 성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감동을 하나로 결합한다. 이러한 헌신은 조립 과정에서도 이어진다. 각 무브먼트는 한 명의 마스터 워치메이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되며, 해당 워치메이커가 모든 부품을 직접 조립해 완성된 타임피스를 탄생시킨다. 이는 기술적 숙련도와 인간의 장인 정신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블랑팡 그랑 컴플리케이션 전통을 충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장에 불과하다. 블랑팡은 칼리버 222ISQ를 통해 차세대 까루셀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 사양

Blancpain Carrousel Incliné
레퍼런스: 66222S 0000 55B (로듐 도금 5N 골드)
레퍼런스: 66222S A 0000 55B (5N 레드 골드)

무브먼트: 매뉴팩처 칼리버 222ISQ
크기: 직경 35.20mm × 두께 5.30mm
소재: 18K 골드, 로듐 도금 5N 골드 또는 5N 레드 골드
기능: 시, 분, 초
조속 장치: 30도 기울어진 1분 회전 플라잉 까루셀
와인딩: 매뉴얼 와인딩
파워 리저브: 100시간
진동수: 4Hz (시간당 28,800회 진동)
헤어스프링: 실리콘
주얼 수: 37개
부품 수: 224개
인증: 블랑팡 크로노미터 인증서 (일 평균 오차 0~+2초 이내)

케이스: 사파이어
직경: 40.30mm
두께: 11.30mm
러그 투 러그: 46.45mm
러그 너비: 22mm
방수 성능: 3bar (30m)

다이얼: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를 적용한 사파이어 다이얼
인덱스: 폴리싱 처리된 블랙 골드 소재의 바통형 아플리케 인덱스
핸즈: 리프형 핸즈, 화이트 슈퍼루미노바® 적용 (주간에는 화이트, 야간에는 블루 컬러로 발광)

스트랩: 교체 가능한 글레이즈드 블루 그레이 컬러의 앨리게이터 가죽 스트랩
클래스프: 안전장치를 갖춘 골드 폴딩 클래스프

프레젠테이션 박스: 마케트리 장식의 우드 박스

가격: KRW 620,950,000
리미티드 에디션 아님 (한정판 아님)

INTERNATIONAL PR
Marie Ansel, marie.ansel@blancpain.com / Jordy Bellido, Jordy.bellido@blancpain.com